

■ 논문 ■

배제의 논리로서 ‘인종주의’의 역사적 기원:
고대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노예의 조건에
대한 인식

신 동 규

1. 머리말

근대 이전 피부색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을 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행위인가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 특히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Neo-racism)’가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식민지화된 아프리카에서의 원주민 억압정책이나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최종해결’ 등 대량학살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두개골과 입술 모양 또는 피부색 등 신체적 특징과 상상력에 근거한 혈통과 종자를 기준으로 인간의 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제국주의 시대에 흔하게 나타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보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고 우열을 나누면서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의 논리를 강화하고, 전지구적인 지배질서 체제를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 파시즘의 정치적 실패, 제국주의의 역사적 패배는 계몽의 시대에 과학의 이름으로 체계화된 비합리적인 인종의 구분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UNESCO)는 모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일한 종에 속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지지해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인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인종주의에 근거한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왜 인종주의는 계속되는가? 답은 인종주의의 역사성에 있다. 그것은 인종주의가 집단 내부나 외부의 이질적 요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에 대한 우월감으로 표출되거나 공포나 적대감이 내포된 담론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인종주의는 인간이 이질적 요소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특징에 따라서 정의된다. 신인종주의라는 이미 오래된 신조어의 탄생은 인종주의의 이러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유대주의를 근대적 개념이 아닌 고대 세계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종주의를 볼 때 근대를 지배했던 생물학적 결정론과 신체적 특징에 따른 구분에 의거한 인종주의가 오히려 예외적이며 특수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종(Rac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종류의 주장에 대해 ‘시원적 인종주의(proto-racism)’라는 이름표를 덧붙이는가 하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차별에 신인종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근대적 인종주의를 하나의 시대적 맥락을 가진 개념으로 분리해내고, 그를 통해 인간의 이성이 발전시킨 근대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대의 시원적 인종주의이건, 19세기의 인종주의이건, 20세기의 신인종주의이건 모두가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 낸 타자성을 통해 주류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집단에 대한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근대의 ‘인종주의’는 유사과학이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구성된 배제의 논리에 붙여진 이름이며, 우리는 역사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배제의 논리를 이 개념을 통해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종주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인 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둔 동원과 배제의 논리에서 민족주의와 조우하게 된다. 어원상으로 ‘인종(Race)’과 ‘민족(Nation)’의 의미가 가지는 중첩성과

‘에스닉(ethnic)’에서 파생된 여러 특징들이 교차하는 복잡성 속에서 인종과 개인, 민족과 공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정치성을 보게 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종인 인간이 언어적 혹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타자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고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을 구분 대신 문화적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발표된 1950년 유네스코의 ‘인종문제(The Race Question)’에 대한 선언은 지속적인 배제의 논리를 담은 인종주의에 대한 물이해와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다. 인류를 단일한 종으로 인정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인종(Race)’을 ‘에스닉 집단(ethnic groupe)’으로 대체하고자 제안하는 이 선언문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근대적 인종주의의 종말을 고했음 뿐, 차이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는 동인의 본질을 꿰뚫지는 못했다.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에스닉 집단’을 통한 구분은 우생학과 같은 유사과학을 극복할 수 있는 있었지만, 이후 특정 사회에 속한 하위 문화 공동체가 ‘인종적 집단’으로 규정되는 현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현대사회는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고 불리는 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둔 신인종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특정한 ‘에스닉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적 특징은 피부색, 두개골 형태 등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주의에서 신체적 특징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세계의 타자 인식 방식을 통해 인류역사에 있어서 신인종주의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인종주의가 사실은 오래된 문화적 요소였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종주의는 인간의 본성인가? 왜 우리는 고대 세계의 타자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2. 그리스의 외부인 인식과 문화적 민족주의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생각건대, 도도네인들이 여인들을 ‘비둘기’라고 부른 것은 그녀들이 이방인들이라 그녀들이

하는 말이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뒤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자 그들은 ‘비둘기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다. 그녀가 비헬라스어를 말하는 동안에는 그녀의 말이 그들에게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쯤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둘기가 어찌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비둘기를 겁다고 한 것은 여인이 아이굽토스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굽토스의 테바이와 도도네에서 예언하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며,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보고 예언하는 기술은 아이굽토스에서 온 것이다. 아무튼 축제와 행렬과 제물 바치는 의식을 세상에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은 아이굽토스인들이고, 헬라스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배웠다. 그 증거로, 이런 관행들은 아이굽토스에서는 아주 오래됐으나 헬라스에는 최근에야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레네스(Hellenes)라고 칭하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비그리스인을 바르바로이(Barbaroi)라고 불렀다.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바바(barbar)라고 소리나는 것처럼 들렸고,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바바’거리는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이 언어가 다른 외부인을 인식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비둘기 소리는 다른 언어를 뜻하며, ‘검은 비둘기’는 피부색이 검은 이집트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그리스 세계는 이집트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바르바로이 중에는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건데 그리스인들은 - 특히 헤로도토스 자신은 - 흑인들을 헬레네스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했을 뿐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당대 그리스의 기록은 이집트인으로 묘사되는 흑인들이 우수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집트 문명을 단순하게 흑인 문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문명의 일부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따르면 아프리카 문명은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포함된 문명권이었던다.

1) 헤로도토스, 천병희 역, 『역사』 (서울: 숲, 2009), 196쪽.

어쨌든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을 우수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으로 간주했다. “이 프삼미스가 아이굽토스의 왕이었을 때, 엘리스인들의 사절단이 그를 방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설한 올림피아 경기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아름다운 축제라고 자부했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인 아이굽토스인들조차 이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리스인들이 아이굽토스에 도착하여 용건을 말하자 프삼미스 왕은 아이굽토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을 불러오게 했다.”²⁾ 헤로도토스의 이러한 인식은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화 사명’ 같은 논리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대 세계에서 흑인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문명의 전파자였다. 그리고 근대적 학문체계가 유럽 문명의 발상지로 정의한 그리스 세계는 흑인이 전파한 기술과 문화의 수혜자였다.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기, 그리고 그보다 이전 시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근대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흔히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현저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헤로도토스는 “캄뷔세스가 사절단을 보낸 이들 아이티오피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생겼다고 한다.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³⁾라고 전하면서, 관습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다.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헤로도토스의 관점은 신비로움으로 포장하여 열등함을 드러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과는 사뭇 다르다.

“1910년 6월 13일, 아서 제임스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는 영국 하원에서 ‘이집트에서 처리하여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⁴⁾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고대의 관점과 근대 이후 형성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이드는 “벨푸어는 영국의회의 의원으로서 영국, 서양, 서양문명의 이름으로 당대의 이집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단순히 또 하나의

2) 같은 책, 258쪽.

3) 같은 책, 288쪽.

4)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68쪽.

식민지가 아니라, 서양제국주의의 성공을 입증하는 소재였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영국에 의해 병합되기까지 동양의 후진성을 할하는 소위 학문적 실례로만 이야기 되는 존재였다”⁵⁾라고 강조하면서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이집트에 대한 인식이 고대의 관점과 확연하게 다르게 변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지리적 경계, 문화적 경계와는 다른 관계들이 고대 세계에 설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언어의 차이를 가리키는 헬레네스와 바르바로이 사이의 관계는 점차 이민족에 대한 그리스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화해갔다. 특히 헬레네스는 점차 문화적 공동체로 정의되었다. 이소크라테스(Isocrates)가 기원전 380년에 있었던 올림픽 제전에서 한 연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지금껏 우리의 도시[아테네]는 사고와 언변에서 인류 최고였으며, 아테네의 제자들은 다른 세계의 교사가 되어왔습니다. 아테네로 말미암아, 이제 ‘헬레네스’라는 이름은 하나의 종족이 아니라 지성을 의미하게 되었고, 공동의 피를 나눈 자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공유한 자들이 ‘헬레네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⁶⁾ 이러한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처럼 아테네의 문화 수준은 당시 인류 최고였을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에우독소스(Eudoxos)가 과학과 문화의 중심을 그리스가 아닌 이집트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테네의 웅변가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진실이라기보다 신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의 많은 지식인들이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헤로도토스 또한 『역사』에서 그리스가 이집트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거의 모든 신들의 이름이 아이킵토스에서 헬라스로 도입되었다. 나[헤로도토스]는 신들의 이름이 비헬라스인들에게서 유래했음을 몸소 탐문하여 알아냈으며, 대개 아이킵토스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포세이돈과 디오스쿠로이들 말고는, 그리고 헤라, 헤스티아, 테미스, 카리스 여신들과 네레우스의 딸들 말고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모두 옛날부터 늘 아이킵토스 땅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킵토스인들이 하는 말을

5) 같은 책, 73쪽.

6) 마틴 버널, 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서울: 소나무, 2012), 160쪽.

그대로 전하고 있다. 아이큐토스인들이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신들의 경우, 포세이돈을 제외하고는 펠라스고이족이 이름을 붙인듯하다. 헬라스인들은 포세이돈을 리뷔에인들에게 배웠다. 리뷔에인들만이 처음부터 포세이돈이란 이름을 알았고, 그를 늘 숭상했기에 하는 말이다.”⁷⁾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에 활동한 크란토르(Krantor)는 “플라톤의 동시대인들은 그가 『국가』를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제도를 배웠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플라톤]를 비웃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론 (De Caelo)』에서 이집트인들의 문화적 우수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신분제를 창안한 이집트인들은 사제들에게 여가를 주었고 이를 통해 사제들은 수학을 발전시키면서 이집트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렇게 축적된 이집트의 수리기술은 천문학을 비롯한 기하학과 대수학의 총체였으며, 그에 비하면 그리스인들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⁸⁾ 이소크라테스의 신념과 선동은 아마도 더욱 객관적 기준에 의거했을 에우독소스, 헤로도토스, 크란토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이 차이의 의미를 근대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차이가 헬레네스를 정의하고 다른 집단을 타자화 시키는데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화를 매개로 헬레네스의 통합을 주장하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이소크라테스에게서 헤르더(J. G. Herder)의 사상으로 요약되는 18세기 독일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요체가 발견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프라나메츠에 따르면 “민족주의란 문화적으로 불리함을 느끼는 민족들의 반작용이다. 그 반작용은 허약함과 불안정감에서 나오는 반작용이 아니고, 특정 조건들이 형성되었을 때의 반작용이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서로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러한 민족들이 동일한 이념과 동일한 진보의 개념들을 공유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이러한 이념들을 성취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민족들보다 나쁜 위치에 있거나 혹은 그렇다고 느끼는

7) 헤로도토스, 『역사』, 192쪽.

8) 마틴 버널, 『블랙 아테나』, 167쪽.

곳에서, 민족주의는 번창하는 경향이 있다.”⁹⁾ 문화적 민족주의가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의 지위와 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선동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18세기 독일의 상황과 헤르더의 문화의식과 닮아있다. 즉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스를 근대적 언어로 읽어낸다면 마이네케(Meinecke)의 문화-민족(Kulturna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틴 버넬(Martin Bernal)이 지적하듯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오늘날 민족주의라고 정의하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¹⁰⁾ 이소크라테스의 민족의식은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에 대한 이집트의 우월성을 느끼고 있었던 당대인들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작동하는 그리스적 정체성의 - 헬레네스 - 형성 과정은 바르바로이를 타자화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본 그리스의 문화적 정체성과 노예의 조건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한 세기가 흐른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유사 과학이 만들어낸 인종적 구분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과학의 이름으로 비과학적인 인종주의 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블루멘바흐(Blumenbach)나 모턴(Morton)같은 근대인들의 생물학적 결정론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리아인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의 인종적 위계질서와는 다른 타자 인식이 고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밭 달림’과 ‘날개 달림’은 풀 [種]에서 차이를 낳는데, ‘흙’과 ‘검음’은 그렇지 못하다. [...] 한쪽은 정의(定義)이고 다른 한쪽은 밀감(재료)이기 때문에, 정의 속에 든 반대성들은 풀에서 차이를 낳지만, (풀이) 밀감과 함께 잡힌 것’(밀감과 풀의 복합물

9) 존 프라나메츠, 「민족주의의 두가지 유형」, 유젠 캄벤가 편, 손인수, 심창희 역, 『민족주의의 이해』 (서울:문음사, 1987), 54쪽.

10) 마틴 버넬, 『블랙 아테나』, 66쪽.

속에 든 반대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검음’은 꿀의 차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흰 사람과 검은 사람 사이에는 꿀의 차이가 없다. 이 사람들 저마다에 이름을 하나씩 붙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여기서 밀감(재료) 같은 것이며, 밀감은 어떤 차이도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 왜 이 말(馬)이 사람과 꿀에서 다른가? 그것들에 대한 정의가 밀감과 함께 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정의속에 반대성(반대되는 성질)이 (구성 요소로서 들어) 있기 때문이다. 흰 사람과 검은 말 사이에도 반대됨이, 그 꿀에서 반대됨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희고 말이 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희다고 치더라도 꿀에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흰 사람과 검은 사람 사이에는 종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동일한 종으로 파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그의 저작 속에서 상당히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정치학』에서는 “모든 동물 중 유독 사람만이 언어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을 로고스(logos)인 언어라고 강조한다.¹²⁾ 그리고 로고스의 의미는 이성으로까지 확대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언어 능력을 가진 모든 인간을 하나의 특별한 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수사학』에서 피부색이나 체격 조건 보다, 나이와 윤리적 가치관이 사람의 특징을 나누는 기준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한다. “예를 들어 절제하는 자의 절제는 바람직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론과 정직한 욕망을 그 상관 관계로 갖는다. 반면 무절제한 자의 무절제는 동일한 대상을 다루면서도 반대의 결과들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분을 잠시 접어두고, 사람들의 다양한 자질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해보자. 아마도 우리가 흑인이거나 백인, 키가 크거나 작다면, 우리가 말했던 어떠한 결과들도 규칙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이거나 젊은이, 정당한 자이거나 부당한 자라면, 거기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¹³⁾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피부색과 상관없이 인간을 동일한 종으로

11)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주, 『형이상학』 (서울: 이체이북스, 2001), 442-444쪽.

12) 아리스토텔레스, 라종일 역, 『정치학』 (서울: 올재, 2015), 21쪽.

13) 아리스토텔레스, 이종오 역, 『수사학』 (서울: 리젠펠, 2007), 153-154쪽.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 내는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피부색과 신체조건을 통해 인간의 종을 구분했던 근대적 사고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종주의자인가 하는 물음에 의문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종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보는 시각은 그가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류가 다르게,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한 데에서 기인하였다.¹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인종(race) 개념의 출발점인 ‘종자’와 ‘혈통’을 구분하는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적 속성을 자연적인 인간 본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유대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정의나, 고귀한 혈통을 중요시 했던 고비노의 인종주의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종주의자인가?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가 -특히 피부색에 따른- ‘인종’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체계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흰 사람과 검은 사람 사이에는 종의 차이가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인식과, 혈통의식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규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인식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상호 모순적이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더 극명한 논리적 대립을 보여 주었던 노예가 되는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자. 이 상황과 조건은 바로 자연적 상태의 노예라고 간주되는 노예들 사이의 결혼으로 태어나는 ‘모태예속민’들과,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근원적인 모순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정복활동을 통한 노예 수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기술하면서 노예제를 옹호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살펴본다면 당시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한 논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4)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6쪽.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의 속성을 가진 자연적 상태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노예 상태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을 진정한 노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가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린다면 노예나 노예의 자손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인들은 전쟁포로를 노예로 하는 원칙을 옹호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기를 꺼려하며 야만인만을 노예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며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논한 자연적인 노예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야만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노예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¹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노예의 존재와 그를 통한 노예성의 혈통적 전승을 통해 노예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예속된 상태인 노예들의 근원에 대해 논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 자연적 노예 상태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옹변해주기도 한다. 즉 자연적 노예 상태의 시초를 입증할 계보학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스’를 인식하는 방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인인 헬레네스와 노예인 야만인(바르바로이)로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적 노예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후에 로마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듯,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노예와 자유인을 나누는 경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당시 그리스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이 구절은 “당연하게도 야만인[외부인]들은 그리스인에 의하여 지배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야만인[외부인]과 노예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¹⁶⁾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주장의

1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0쪽.

16) 같은 책, 18쪽.

핵심은 자연적 노예 상태의 조건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조건 통해 혈통 관계에 의한 노예 본성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복활동을 통한 노예 수급을 정당화 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피지배 집단에 속한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노예 상태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종주의자라기 보다는 당시 그리스 사회를 지탱하는 노예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체제유지론자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인다. 우리는 “피지배계급이 잘 복종하고 혁명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 사이에서의 우애의 정신이 없어야 한다”¹⁷⁾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서 그의 정치적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앙 드라캥파뉴(Christian Delacampagn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통해서 적어도 그가 근대 시대에 앞서 인종주의의 원형을 제시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특히 대항해 시대의 개막과 함께 있었던 라스카사스와 세폴베다의 논쟁에서 인종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세폴베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제1권의 논지를 인디언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옹호한 것은 명시적으로 노예제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세폴베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끄집어 낸 것도 노예제 옹호의 논리였지 인종주의 그 자체는 아니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종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근대적 인종주의와는 다른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나, 근대적 인종주의가 형성하는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세폴베다를 동일하게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체제로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역사적 맥락을 잘 반영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캥파뉴가 주장하듯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대적 인종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근대의 인종주의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17) 같은 책, 59쪽.

18) Christian Delacampagne, *Une histoire du racisme*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2000), p. 71.

논리를 이용하고 전유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헬레네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그들의 ‘문화’로 정의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옹호하고 노예의 본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서, 그를 근대적 의미를 가진 ‘인종주의자’라고 정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적 정의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근대의 의미의 인종주의에서 상대화시킨 시원적 인종주의자라는 의미에 가두어 차별할 필요도 없어진다.

4. 로마의 사회적 위계 질서: 문화적 차이와 구별짓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그는 146년 렙티스 마그나(Leptis Magna)에서 태어나 16세에 로마로 이주했다. 라틴어를 구사했던 그는 강한 카르타고어 억양으로 놀림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 정통한 법률가이자 뛰어난 행정가로 성장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황제의 눈에 들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특히 콤모두스(Commodus) 치하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히스파니아에서 호민관과 프라이토르를 지냈으며, 갈리아 루그두넨시스¹⁹⁾와 판노니아²⁰⁾의 총독을 지냈다. 아우렐리우스의 죽음과 콤모두스의 암살, 페르티낙스(Pertinax)의 실정, 디디우스 율리아누스(Didius Julianus)의 권좌 찬탈로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시리아 총독 페스케니우스 니게르(Pescennius Niger)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로마를 지켜낼 구원자로 추앙받는 동시에 황제의 예우를 받아 브리타니아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클로디우스 알비누스(Clodius Albinus)와 도나우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각자가 통솔하는 군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 이들 중 로마에 가장 먼저 입성하여 황제의 권좌를 차지한 이가 바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였다.²¹⁾

19) 현재 프랑스 북부에서 리옹에 이르는 지역.

20) 현재의 헝가리, 오스트리아, 발칸반도 일대.

21) Allen M. Ward, Fritz M. Heichelheim, Cedric A. Yeo, *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London: Pearson, 2009), p. 370.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현재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근교에서 출생했다. 2세기 후반에 제작된 세베루스의 가족 초상화에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그의 피부가 유독 어두운 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피부색이 어두운 흑인 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로마의 시민이었던 그의 병사들은 그를 황제로 옹립했으며, 로마제국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황제를 인정했던 것이다. 로마 제국의 장구한 역사에서 흑인 황제 즉위는 예외적 사건이라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황제로 즉위 할 당시 로마 주교 빅토르(Victor) 1세 또한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출신이었다. 로마 주교직은 4세기부터는 교황으로 불리게 되며, 빅토르 1세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계승한 14번째 교황으로 기록되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예외적 사건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정치적 결단력과 군사적 배경이 그가 황제가 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권력을 장악하기 까지 보여준 이력은 근대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로마는 정복지역 출신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인재를 중용하는 개방적인 능력주의 사회였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즉위하기 이전 트리아누스(Traianus), 아우렐리우스, 피우스(Pius)는 모두 로마의 관점에서는 정복지 출신의 이방인 황제였으며, 원로원의 의원들도 다수가 속주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정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²²⁾ 로마인들의 관심은 제국으로 편입된 외부인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있었으며, 이들과의 융합을 부국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제국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로마의 시민권 안으로 포섭하는 것은 통치 영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피에타스(공경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로마인들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 사회 질서의 요체였다. 혼합정치체가 공화정의 안정을 기반으로 제국을 만들었다면, 제국을 유지하는 힘은 개방성과 다양성에서 나왔다.

22) 안희돈, 『네로 황제연구』 (서울: 다락방, 2004), 94쪽 ; 정기문, 「로마인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가-로마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9호(2008), 300-301쪽.

제국과 식민지, 백인 식민주의자와 유색인 원주민 사이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며 하향식의 단선적 관계는 근대적 질서일 뿐이며, 고대 로마제국에서 출신지와 피부색은 통치를 위한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는데 부차적인 요소였다.

흑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 백인 노예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기원전 73년 트라키아인 노예 스파르타쿠스(Spartacus)가 일단의 검투사들을 이끌고 노예 해방을 선동하였을 때 갈리아인과 게르만인들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가이우스 마리우스(Gaius Marius)가 킴브리아 전쟁에서 생포해온 전쟁 포로들로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미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전쟁 포로들을 고된 노역으로 내몰았던 것이 강력한 저항의 원인이었으며, 로마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유였다. 스파르타쿠스가 게르만인과 켈트인으로 구성된 부대와 트라키아인과 근동인으로 편성된 부대를 중심으로 마르쿠스 크라수스(Marcus Crassus)와 결전을 치루었다는 사실은 당시 노예 구성에서 백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²³⁾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연결되는 대서양 무역을 통한 노예 거래는 ‘흑인=노예’ 또는 ‘아프리카인=노예’라는 등식을 만든다. 그러나 고대 로마가 만든 지중해 세계의 노예는 철저하게 제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외부에서 만들어졌다. 이 노예 형성 구조는 로마를 중심으로 점차 주변부로 확장되는 제국적 성격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남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제국의 정복지에서 만들어지는 노예들은 백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흑인 노예라는 표상은 근대적 산물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로마 제국이 만든 노예에 대한 표상은 정복지 주민이나 전쟁 포로로서 피부색이나 두개골 형태 등 신체적 특징으로 로마인들과 구분할 수 없었다.

근대 세계의 대서양 삼각 무역이 노동력 공급지인 아프리카라는 공간에 노예의 정체성을 가두어 버렸다면, 고대 로마는 자신의 법이 미치는 영토 밖에 존재하는 이들을 노예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어떤 자유인

23) Allen M. Ward, Fritz M. Heichelheim, Cedric A. Yeo, *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p. 393.

동맹국의 시민도 속주 관할 하에서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원전 104년 원로원 포고에도 나타나듯, 법적 공동체 밖의 ‘인구’만이 로마의 합법적인 노예가 될 수 있었다.²⁴⁾ 근대 세계에서 노예에 대한 인식이 ‘특정한 곳(아프리카)에 속한 사람들’로 확장되면서 에스닉(ethnic)적 특징을 가진 노예집단이 타자화되었다면, 로마제국은 ‘특정한 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로마의 시민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립했다. 고전기 로마법이 노예를 ‘법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했던 것도 ‘법의 주체’인 시민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노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되는 대상의 조건은 - 피부색, 곱슬머리, 입술 모양, 두개골 형태 등 - 신체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 보호 받는 영역에 포함되었는가 하는 소속과 시민권 획득의 유무에 의해 규정되었다.

로마인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개념 역시 시민권의 도덕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로마에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는 주인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유를 갈망하는 노예들에게 충성심을 고취하는 방편이었다. 충성스러운 노예들이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로마의 전통이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화정 말기의 혼란한 정국이 안정되자 공적 기준의 마련과 새로운 자유민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예제 입법과 관련하여 수에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전기에서 “그는 인민을 순수하게 그리고 외국인과 노예의 피에 의한 일체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매우 신중하게 부여하였고 노예해방에 제한을 두었다.[Suet. Aug. 40.3]”라고 진술하였다.²⁵⁾ 수에토니우스의 ‘외국인과 노예의 피에 의한 오염’ 문제는 당대의 로마인들이 노예제 확립의 필요성을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⁶⁾ 이러한 진술은 고대 로마의 노예제 입법의 동기가 근대적 의미의 인종주의에 기반을 두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4) 김창성, 「노예제의 이해와 역사수업-로마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22호(2011), 9쪽.

25) 케이트 R. 브레들리, 차진환 역, 『로마제국의 노예와 주인: 사회적 통제에 대한 연구』 (서울: 신서원, 2001), 138쪽에서 재인용.

26) 같은 책.

그러나 브래들리(K. R. Bradley)가 강조하듯 특정한 인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지 않은 이 진술은 “사회적, 도덕적 의미”에서 파악해야만 한다.²⁷⁾ 즉 혈통의 순수성이란 로마의 시민권이 야만적 습성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과 로마의 문화적 정체성이 이질적 문화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즉 수에토니우스가 말한 혈통의 순수성이란 생물학적 특징을 구별하는 요인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5. 맺음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노예가 -로마 시대에도 나타나듯 - 특정 문화집단의 외부인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근대적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이소크라테스에게서 헤르더의 잔상을 불러냈듯이, 문화-민족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자의 면모를 더욱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경향 - 근대적 언어로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를 위해 작동할 때 그 안에서 근대 세계에서 인종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이 만들어낸 동일한 지배의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로마 제국의 사회 경제적 통치 메커니즘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로마가 만든 세계에서 노예가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은 로마의 영토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의 가치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예는 로마 문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이거나 로마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경계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로마 문명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즉 노예는 로마 시민에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노예의 조건과 시민의 조건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로마 문화’였다. 로마가 흑인 황제와 백인 노예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사실은 피부색에 기반을 둔 인종 정치가 근대 세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의 차이가 위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로마 사회의

27)같은 책.

단면은 근대 질서와 거리가 멀었지만 근대를 극복하고 진화한 현대사회의 신인종주의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식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고대와 현대세계를 연결해주는 타자화의 기준이 ‘문화’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민족주의의 배제 논리와 인종주의의 배제 논리가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인종주의적 사회위기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혈통과 피부색에 기반을 둔 근대의 인종주의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라는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까?

창원대학교, jajusdk@naver.com

키워드(Key Words):

인종주의(racism), 신인종주의(neo-racism), 문화(culture), 노예(slave), 고대세계(antiquity)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0)

<국문초록>

배제의 논리로서 ‘인종주의’의 역사적 기원:
고대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노예의 조건에 대한 인식

신 동 규

인종주의(Racism)란 무엇인가? 고대의 시원적 인종주의(proto-racism)이건, 19세기의 인종주의이건, 20세기의 신인종주의이건 모두가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 낸 타자성을 통해 주류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집단에 대한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소크라테스(Isocrates)가 헬레네스를 문화공동체로 정의한 것이나 로마가 흑인 황제와 백인 노예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사실은 피부색에 기반을 둔 인종 정치가 근대 세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의 차이가 위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로마 사회의 단면은 근대 질서와 거리가 멀었지만 근대를 극복하고 진화한 현대사회의 신인종주의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식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고대와 현대세계를 연결해주는 타자화의 기준이 ‘문화’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민족주의의 배제 논리와 인종주의의 배제 논리가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인종주의적 사회위기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Historical origins of the Racism as a logic of exclusion:
Difference of Cultural identity in antiquity and Perception of
Slaves Conditions

Shin, Dongkyu

What is Racism? Whatever it is the proto-racism in antiquity, the racism in 19th century or the neo-racism in 20th century, all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n the group excluded from the community, or expelled out of the boundary. This perspective is made by the alterity which is formed by the perception of differences. In Ancient Greek, Isocrates considered the Hellenes as a cultural community and in the Roman Empire, a black emperor and white slaves coexisted together. These show that racial politic, based on skin color, is the products of modern period, an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 is more important criteria for the order of rank than any others points. Though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ncient Greek, Roman Empire and Modern Society, these aspects observable in antiquity are connected with the questions of neo-racism which has evolved in modern societ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 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alterity. It means that the logic of racism and that of nationalism has the same historical origin and that the social crisis caused from the neo-racism is not a exceptional phenomenon in human history.